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소득 및 고속련직종 종사여부의 결정요인: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과 구직경로를 중심으로

이 지 원

(한양대학교)

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취업상태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임금수준과 고속련직종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로부터 중국(한족·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국 251개 시·군·구 지역의 각 민족 인구점유율을 계산하였다.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과 고속련직종 취업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및 월 평균 소득에 대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 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같은 민족을 통해 취업을 도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전반적으로는 같은 민족을 통해 취업을 도모한 경우 다른 경로보다 더 낮은 임금수준과 고속련직종 취업 확률을 나타냈으나,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며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지역의 거주자에 한해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이 더 높은 임금수준의 직업을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에 이주민들의 인구수가 충분히 축적되면, 이주민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연결망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주요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용어: 혼인이주여성, 혼인이주여성 직업, 민족커뮤니티, 민족사회자본, 구직경로

이 논문은 2015년 전기사회학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발표과정에서 귀한 논평으로 도움을 주신 박정호 교수님과 최종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으로 도움을 주신 세 익명의 논평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투고일: 2015.7.31 ■ 수정일: 2015.9.15 ■ 게재확정일: 2015.9.17

I. 서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여성들의 유입은 금세기 초반부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00년 3.5%에 불과했던 국내 전체 혼인건수 대비 다문화혼인의 비중은 2005년에는 13.5%까지 증가하였으며, 현재에도 전체 혼인의 9%에 육박하는 다문화혼인이 매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2014). 다문화혼인으로 인한 국내 혼인이주여성 인구의 증가와 그 후세대들의 성장은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통합을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정책적 의제로 부상하게끔 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근로자들과는 달리 이들은 상당수가 국내에서 정착하여 오랜 기간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혼인이주여성들이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도모함에 있어 경제활동참가 여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혼인이주여성들의 기초적인 생활여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 가족원 및 국민으로서의 정체감, 자아실현, 본국가족 후원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박미숙 등, 2014; 박미은 등, 2012). 아울러, 근래 국내의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다문화 가족들은 국내가족들과 마찬가지로 두 부부가 모두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권 등, 2010, p.170).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혼인이주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는 많은 사회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현재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혼인이주여성이 본국에서 취득한 교육, 근무경험과 같은 인적자본은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많은 가치절하를 당한다. 또, 이들은 이주사회의 차별, 배제와 같은 이주민으로서의 제약과 동시에 출산, 가사노동과 같은 여성으로서의 경제활동 참가제약 요인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박미은 등, 2012; 이태정 등, 2013).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경험적인 연구들은 국내거주 혼인이주여성의 취업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해 주었다(박재규, 2013; 이태정 등, 2013; 전은희, 2014; Kim et al., 2014). 이 연구들은 혼인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취업을 도모함에 있어 교육 수준, 한국어 능력과 같은 인적자본을 비롯하여 남편의 지지 및 미취학자녀여부와 같은 가족특성, 지역모임참여와 같은 사회활동 요소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그럼에도 선행문헌들은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참가중인 혼인이주여성 집단 내에서 어떠한 요인에 의해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숙련수준 등으로 대표되는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질적 차이가 결정되는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숙련도 정도와 소득수준을 탐색한 양인숙과 김선혜(2011)의 연구와 이태정 등(2014)의 연구 외에는 관련된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혼인이주여성이 많은 제약들을 극복하고 직업 활동에 참가하더라도, 이들의 실제적인 기대와 욕구에 부합하는 직업을 취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 해명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직업활동에 참가중인 많은 혼인이주여성들은 낮은 숙련수준의 기피 직종이나 소득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대수준이나 자아실현과는 거리가 먼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김승권 등, 2010, pp.4-9).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이 연구는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 집단 내에서 임금수준과 직업의 숙련정도로 측정된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탐구를 진행함에 있어 특별히 그간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한국사회 내에 거주하는 같은 민족인을 통한 구직노력이 구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고자 한다. 거주지역의 특성과 구직경로의 영향력은 이주민 연구의 오래된 연구관심 영역에 해당하며, 다양한 국가에서 해당 요인들에 따라 이주민들의 생활 및 적응 양상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관련 요소들이 국내 혼인이주여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현재 거의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II. 선행문헌 검토 및 연구가설 도출

1.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취업 및 직업 현황

이주민들은 많은 경우 이주와 함께 이주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열세의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Nee & Sanders, 2001; Sanders & Nee, 1996). 앞서 언급한 대로 본국에서의 취득한 인적자본이 이주국가에서는 가치절하 되며, 이주사회로부터 제도적인 배제나 문화적인 차별을 경험하기도 한다. 국내의 혼인이주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국내 혼인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2012년에 시행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는 혼인이주여성들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처해있는 어려운 상황을 확인해 주고 있다(전기택 등, 2013).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당시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53.0%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국내 기혼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인 52.2%과 유사한 수준으로, 혼인이주여성들은 경제활동참가에서는 국내 기혼여성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통계청, 2012). 다만, 미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 중 84.1%가 향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냈으며, 전체 혼인이주여성 중 78.9%가 이주 전 본국에서 근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할 때 혼인이주여성은 국내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측면에서 경제활동 참가에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장서영 등, 2010).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혼인이주여성의 고용의 질적 특성은 국내여성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혼인이주여성들은 저숙련, 저임금 그리고 고용안정성이 낮은 직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 중 29.9%가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53.9%, 무급가족 종사자가 9.5%에 달했다. 임금수준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7.4%가 월 평균 100만원과 200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혼인이주여성들은 200만원미만 수준의 월 평균 소득을 보고하였다. 아울러, 2012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서도 유사한 인적자본 수준 사이에서도 국내 여성과 혼인이주여성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자료들에서

20~59세의 국내 여성 임금근로자들 중 62.6%가 정규직에 해당하였으며, 대졸이상은 69.7%의 정규직 근무 비중을 나타낸 반면 동일한 연령구분에 속하는 임금근로 중인 혼인이주여성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정규직에 해당하는 비중은 36.1%로 나타났으며, 대졸이상인 경우에도 44.5%만이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2).

혼인이주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김승권 등(2010, pp.165-184)의 연구보고서와 장서영 등(2010)의 연구는 혼인이주여성들이 출신민족과 보유한 인적자원에 따라 차별화된 취업전략을 나타내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혼인이주여성의 사례조사를 통한 이들의 취업경험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기술을 보유한 여성의 경우 이를 활용하여 간호사, 초등학교 교사, 통역관, 외국어강사와 같은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국내의 혼인이주여성 집단 중 가장 교육수준이 높으며 영어구사가 비교적 자유로운 필리핀 여성의 경우, 이러한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보육기관의 일반 교사나 영어교사로 근무 할 수 있었다. 일부 조선족 및 베트남 출신 고학력 여성들도 학교교사, 간호사 혹은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무·전문 직종은 비록 많은 경우 비정규직에 해당하며 임금도 유사한 직업군의 국내 여성보다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숙련 직종으로 분류된다는 측면에서 혼인이주여성들 사이에서 좋은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희, 허영숙, 2014).

반면, 보유한 인적자본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적인 혼인이주여성이 주로 진입하는 일자리는 가사서비스, 아이돌보미와 같은 가정서비스 일자리이거나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 제조업 혹은 식당도우미와 같은 서비스업종이었다. 이러한 직업은 주로 같은 민족의 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수준이 낮은 혼인이주여성이 해당 직종에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과 상관없이 취업이 상대적으로 쉬우며, 특별한 훈련이 없이도 임시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해당 직종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승권 등, 2010, p.172).

2. 이주민의 사회자본과 민족성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경제적 및 인적 자본과는 달리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 배태(embedded)되어 있는 속성을 갖는다(Granovetter, 1985; Portes, 1998). 그간 사회자본은 이주민들이 이주사회에서의 정착과 적응을 도모하는데 활용되는 주요자원으로 간주되어왔다. 특히, 이주민들은 새로운 사회에서의 정착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이주를 감행한 동족 이주민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나 사회자본을 활용하는 강한 동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ssey & Espinosa, 1997).

이러한 일환에서 이주민들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자원과 경로를 통해 새로운 사회에서 구직을 도모하는지는 그간 관련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Sanders & Nee, 1996; Elliot & Sims, 2001; Aguilera & Massey, 2003; Klinthäll & Urban, 2014; 박형기 등, 2014). 국내의 혼인이주여성과 같이 공식적인 노동시장에 진입에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을 경험하는 경우는 인적관계를 통한 구직의 중요성이 더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들의 정착과정에서 인적관계 및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에 있어 일부 학자들은 민족자원(ethnic resource) 혹은 민족사회자본(ethnic 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주민들의 민족성 자체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시키는 강한 결속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Levanon, 2011; Light & Gold, 2000). 이 개념은 민족성이라는 강한 결속요소를 중심으로 같은 민족의 가족, 친족, 친구 및 지인들이 서로 내집단에 대해서는 강한 호혜 및 연대를, 외집단에 대해서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나타내는 관계로 연결되어 이 관계망이 이주사회에서의 정착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국내 혼인이주여성에게 이주민 및 같은 민족인들 간의 강한 결속망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구직과정을 도울 수 있다. 우선, 한국사회에서 먼저 직업을 구한 같은 민족 출신이 동족인들을 해당 직업에 추천하거나,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정보와 접근성을 높여 줄 수 있다. 아울러, 육아와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같은 민족 간의 연대가 정서 및 사회적 적응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구직 및 노동활동을 간접적으로 돕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미국의 Aguilera와 Massey(2003)의 연구에서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이 친구나 친인척과 같은 가까운 인적관계망을 통해 구직을 도모하는 경향은 상대적으로 주류 노동시장에로의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된 마등록 이민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구직경로는 공식적인 노동 시장에서 근무할 확률을 증진시켜

간접적으로 더 높은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박형기 등(2014)의 연구는 국내에서 자국인 친구수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같은 민족 간의 결속이 반드시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Portes, 1998). 일찍이, Granovetter(1973)는 구직과정에서의 인적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하면서, 내부관계의 강도가 낮은 약한 연결망(weak ties)이 강한 연결망(strong ties)보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직업을 취득하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Lin과 Dumin(1986)의 연구도 취업자의 직업적 위계의 따라 연결망의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면서 지인(acquaintance)으로 대표되는 약한 수준의 연결망은 가족 및 친족 연결망보다 높은 직업군에 접근할 확률을 더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같은 민족인들 간의 결속이 이주민들에게 오히려 부정적으로 기능하는 원인으로는 민족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의 강한 결속이 오히려 과도한 통제로 작용하며 외부의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으로 나타나서 이주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유도할 수 있다. 아울러, 이주민들이 민족적 관계망 내에만 머무를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상위 직업군과 관련된 고급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민족 집단 내부관계에만 안주하여 장기적으로 자신들이 높은 직업군에 진입하는데 필요한 인적자본을 발전시키는데 소홀해 질 가능성도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어왔다(Esser, 2004; Sanders, Nee & Sernau, 1994, 2002).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결국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 사이에 형성된 관계망의 효용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해당 인적관계 내부의 결속력뿐만 아니라 내부의 사람들이 보유한 자원의 총량과 이 자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직업군의 특성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회자본의 효과가 사회관계망 내부의 특성과 크기에 의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Bourdieu, 1986). 또, Lin과 Dumin(1986)이 보인 것처럼 구직자들이 진입하고자 하는 직업군에 따라라도 각 관계망이 특정 직업을 매칭(matching)할 수 있는 능력이 달리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노력의 성과를 예상해 볼 때,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을 경로로 하는 구직활동은 다른 경로보다 비선호적 특성의 직업을 매개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이주민들의 본격적인 유입과 정착이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재 국내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혼인이주여성과 이주근로자들은 노동시장의 낮은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개별 혼인이주여성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그 효과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같은 민족 구직경로는 국내에서 혼인이주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직업군에 접근하는데 교량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3. 거주지역의 민족구성과 이주민의 삶

거주지역은 개인이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지리적인 기반인 동시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인격적, 사회적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주변효과(neighborhood effect)는 거주지역의 일련의 특성들이 거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Galster, 2012). 국내에서 발표된 최근 연구들은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에 의해 혼인이주여성의 삶에 유의미한 주변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두섭 (2014)의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들이 강한 자문화정체성을 고수하며 모국인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반면 이주사회로부터는 고립되는 양상으로 사회적응을 도모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여 주었다. 다른 연구들도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에 따라 혼인이주여성의 출산행태, 차별경험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두섭, 송유진, 2013; 김한성, 이유신, 2014).

주변효과가 발견되는 기제를 설명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상정되는 요소는 사회적 네트워크 및 자본의 형성을 통해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Sampson et al., 2002). Vervoort 등(2010)은 거주지역에 이주민의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이들 간의 교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또, 스웨덴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인적관계를 통한 구직경향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준바 있다(Klinthäll & Urban, 2014). 이를 바탕으로 이주민들 간의 교류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이 관계망의 규모의 증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사람들이 연결되므로 질적 측면의 도약이 발생할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이주민들이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인을 활용할 개연성이 높아짐과 함께

이러한 구직활동의 성과가 더욱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주민들에게 거주지역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또 다른 주요 논의는 민족커뮤니티(ethnic community)에 관한 것이다. 우리보다 긴 이주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구사회의 경우, 이주민 연구에서 민족밀집지역(ethnic enclave)은 그간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이루어진 중심적인 연구 주제 중 하나이다. 이주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이 특히 이주민들의 경제적 정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서구에서는 그간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관련내용은 Portes & Shafer, 2007 참고).

Portes(1981, pp.290-291)는 민족밀집지역의 주요특성으로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생활하는 지역 내에 이주민 기업가들이 있으며 이들이 동족인들을 고용하여 해당 지역이 주류 경제와는 별개의 동족이주민을 위한 내부노동시장으로 기능하는 것을 꼽는다. 이러한 내부시장에서는 같은 민족인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를 통해 모국에서 취득한 인적자본은 물론 모국어 능력, 모국 문화양식을 경제활동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기회가 증가한다. 따라서 포르테스를 위시한 관련학자들은 대부분 민족밀집거주지역이 이주민들의 경제적 정착과 상향이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Xie & Gough, 2011).

그러나 일부의 학자들은 이러한 관점을 비판해 왔다(Sanders & Nee, 1987; Light & Gold, 2000). 대표적으로 Sanders와 Nee(1987)는 같은 민족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이러한 지역특성의 수혜를 입게 되지만, 피고용인들의 경우 오히려 비선호적인 근로조건에 처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였다. 이후 서구에서 수행된 다양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대체로 민족밀집지역의 부정적인 효과를 지지하고 있지만, 일부연구는 특정민족과 조건에 따라 이러한 효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Zhou & Logan, 1989; Logan, Alba & Stults, 2003; Chiswick, Lee & Miller, 2005; Xie & Gough, 2011).

현재 국내의 일부 대도시 주변지역에서는 민족커뮤니티 및 초기형태의 민족밀집지역이 형성되고 있다. 일례로, 국내에 거주하는 최대 외국인 집단인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이들의 해당지역 인구점유율이 10%를 상회하는 시·군·구 단위 지역이 있다. 이를 좀 더 소단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해볼 경우, 해당 민족의 인구가 전체 지역 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30%에 이르는 동·읍·면 지역이 있다(행정자치부, 2014).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미등록 체류자들의 수를 고려한다면, 이 수치는 실제로는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이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이러한 지역에서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민족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커뮤니티 내에는 같은 민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양한 음식점, 식품점은 물론이고 노래방, 술집, 화물취급소 등이 운영 중인 상권이 형성되어있다. 그 규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중국 조선족 밀집거주지역으로 알려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이나 영등포구 대림2동의 경우 해당 행정 구역 내에만 150~300개의 민족 상점 및 점포들이, 70개 이상의 직업소개소가 운영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이다(김현선, 2010; 박세훈, 이영아, 2010; 박세훈 등, 2010; 이석준, 김경민, 2014). 아울러, 이 지역 내에는 같은 민족 간의 상호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적모임 및 외국인주민센터, 종교시설 등이 운영되며 동족 이주민들 사이의 네트워크는 서로 간 사업자금을 위한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경제적인 목적의 관계양상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석준, 김경민, 2014).

이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민족커뮤니티 거주여부가 국내 혼인이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이석준과 김경민(2014)의 연구는 서구의 민족밀집지역과 유사한 작용방식으로 민족커뮤니티 내에서 혼인이주여성이 동족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영세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러한 영세 자영업은 주로 동족인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혼인이주여성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적자본수준에 비해 주류 노동시장에서보다 더 선호되는 근무조건을 제공 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동족 이주민 집단은 강한 호혜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모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본국에서 획득한 인적자본이 이주사회의 주류 노동시장에서 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기 있기 때문이다(Portes & Shafer, 2007). 또,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인구가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지역의 자체적 커뮤니티는 동족 이주민들 간의 거대한 관계망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혼인이주여성이 상대적으로 좋은 직업을 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와 지원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연구가설

지금까지의 문헌검토를 종합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먼저 앞서 언급한 대로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인구비중이 증가하면 이들 간의 사회적 접촉과 교류가 활성화되며 국내 혼인이주여성이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할 확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또, 혼인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낮은 지위를 고려하여 동족 간 인적관계를 통해 매개된 직업이 다른 경로를 통한 직업보다 더 비선호적인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주민들 간의 교류와 정보교환이 활성화되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이 더 높은 임금과, 숙련도수준의 직업을 구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가설 1: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같은 민족을 통해 취업을 도모했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같은 민족을 통해 매개된 직업은 상대적으로 저임금 및 저숙련 노동에 해당하는 직업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3: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일정수준을 상회하며 높게 나타나는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숙련 수준의 직업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분석 자료와 주요 변수의 구성

이 연구는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보건복지부 등, 2010)로부터 연구대상을 선정하였다¹⁾. 연구대상은 조사당시 경제활동에 참가중인 만18세~59세의 중국(한족 및

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국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전국단위 조사로, 현재까지 각각 2009년도와 2012년도에 총 두 번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따라서 2012년 조사가 현재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출신의 혼인이주여성 15,857명이다. 아울러, 연구대상의 거주지역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행정자치부, 2009)과 『다문화 시·군·구 통계 Data Sheet』(SSK다문화사업단, 2012)를 토대로 전국 251개 시·군·구 지역의 민족구성과 인구밀도를 계산하여 분석 자료에 통합하였다. 거주지역의 인구밀도는 각 지역의 도시화수준에 대한 대응치로 포함되었다(Stark et al., 2007). 거주지역의 민족구성 특성과 구직경로 외에도 관련된 선행문헌에서 활용된 개인, 가족, 사회활동, 거주지역 특성이 통제 및 배경변수로 구성되었으며 이 연구의 모든 분석은 STATA 13.1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변수들의 작성방법과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가. 종속변수

월 평균 소득: 8개의 구간으로 월 평균 소득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응답 구간의 중간값을 부여하여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 값을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조사당시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직종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사무직, 전문가 및 관련직, 임직원 및 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1, 그 외의 응답은 0의 값을 부여하여 이분변수를 구성하였다.

나. 중간변수

같은민족 구직경로: 조사당시 직업의 구직경로를 묻는 문항을 통해 ‘모국인 친구나 아는 사람 소개’라고 응답한 경우 1, 그 밖의 응답은 0을 부여하여 이분변수를 구성하였다²⁾

활용 가능한 가장 최신의 자료에 해당하지만 2009년 자료에서는 응답자들의 거주지역에 대한 정보가 시·군·구 단위까지 파악이 가능한 반면 2012년 자료에는 해당 정보가 시·도 단위까지 제공되어 거주지역의 주변효과를 탐색하고자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는 2009년 자료가 더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2) 해당 응답은 모국 출신의 본인의 가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한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 본인의 가족을 통한 구직활동은 별도의 응답 문항으로 구분되어있다.

다. 주요 배경 및 통제변수

교육수준: 무학 0, 초등학교 6, 중학교 9, 고등학교 12, 대학교 16, 대학원 18의 값을 부여하여 교육연수로 환산하였다. 결측값의 경우 각 해당 민족의 평균값을 부여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 5점 척도로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역진 코딩하여 높은 값이 더 좋은 건강상태를 반영하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어 능력: 5점 척도로 한국어 듣기, 쓰기, 말하기 능력을 묻는 문항을 활용하여 세 문항의 평균값을 부여하였다. 세 문항 중 한 문항에서라도 결측값이 있는 경우 나머지 문항들의 평균값을 활용하였다.

본국 근로경험여부: 이주 전 본국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결측값의 경우 전체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이주 전 본국에서 사무직, 전문가 및 관련직, 임직원 및 관리직에 종사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1, 아닌 경우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미취학 자녀수: 조사 당시 혼인이주여성과 배우자 사이의 자녀 중 미취학 상태라고 응답한 자녀의 수를 합산하였다.

국내거주 친족 가족 수: 조사당시 3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친아버지, 친어머니, 여자형제, 남자형제가 있는지를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총 4항목의 값을 합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1) 개인이나 가정의 어려운 일 논의 2) 여가나 취미생활 3) 결혼식장례식생일잔치 등 참석의 세 가지 활동에 대해 각각 함께하는 한국인이 있는지 묻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각 활동에 대하여 있다고 응답하였을 경우 1의 값을 부여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세 항목의 값을 합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위와 동일한 문항을 활용하여 해당 활동에 대해 함께하는 모국인이 있으면 1의 값을 부여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세 항목의 값을 합산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거주지역 인구밀도: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의 총 인구를 총 면적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 값을 로그변환하여 사용하였다.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에서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응답자와 같은 민족(중국 한족 및 조선족, 베트남인 및 필리핀인)이 전체 인구에 대해 차지하는 점유율을 계산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이 값을 구간을 나누어 각 구간마다 해당하는 가변수(dummy variable)를 구성하여 활용하였다.

2.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N=15,857)

	취업상태 중국(조선족·한족)·베트남·필리핀 출신 혼인이주여성		
	평균	표준편차	비중
조선족(중국) 아내	-	-	58.1%
한족(중국) 아내	-	-	16.3%
베트남인 아내	-	-	14.8%
필리핀인 아내	-	-	10.9%
연령	35.7	9.3	-
교육년수(년)	11.5	3.0	-
주관적 건강상태	3.5	0.9	-
국내 거주기간(년)	6.5	4.1	-
한국어 능력	3.6	1.1	-
한국 국적취득여부	-	-	49.7%
본국 근로경험여부	-	-	80.1%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	-	17.7%
남편과 동거여부	-	-	85.9%
남편 취업여부	-	-	87.8%
미취학 자녀수(명)	0.4	0.6	-
국내거주 친정가족 수(명)	0.6	0.8	-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1.7	1.2	-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1.1	1.1	-
서울/광역시 거주여부	-	-	42.2%
거주지 인구밀도(명/km ²)	6,941.3	7,613.4	-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0.9	1.4	-
같은 민족 구직경로	-	-	17.4%
월평균 소득(만원) ¹⁾	105.4	70.6	-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	-	14.4%

주: 1) 월 평균 소득은 각 응답된 소득구간의 중간값을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분석대상에 포함된 혼인이주여성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이 연구의 전체 연구대상 중 조선족(중국) 아내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족(중국) 아내와 베트남인 아내는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필리핀 아내가 전체 분석대상의 10.9%를 차지하여 분석대상 중 가장 소수민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의 평균 연령은 35.7세로 나타났다. 국내 혼인이주여성은 출신 민족별로 많은 평균 나이의 편차를 보이는데, 이 평균값은 분석대상에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은 조선족(중국) 아내의 비중이 높은 사실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혼인이주여성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과 유사한 수준인 11.5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자신의 건강상태를 5점 척도에서 평균적으로 3.5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국내 거주기간의 평균값은 6.5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어 말하기, 듣기, 쓰기 능력을 종합하여 스스로 평가한 한국어 능력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대상의 절반에 가까운 49.7% 여성이 조사당시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근무경험을 살펴볼 경우 분석대상 혼인이주여성의 85.9%가 본국에서 취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분석대상 중 17.7%는 본국에서 사무직, 전문직 및 관리직 등의 고숙련 직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가구특성으로는 혼인이주여성의 남편의 87.8%는 조사 당시 취업상태에 있었으며, 조사대상의 14.1%는 남편과 별거상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과표에는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별거의 가장 지배적인 사유는 이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혼인이주여성은 평균 0.6명의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였다. 또, 조사당시 평균 0.6명의 친부모, 친형제 등의 친정 가족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의 경우 혼인이주여성은 같은 민족과의 사회활동보다 한국인과의 사회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민족인과 함께하는 사회활동은 평균 1.1개였으며 한국인과는 평균 1.7개의 사회활동을 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혼인이주여성들의 거주지역특성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중 42.2%는 서울 및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시·군·구 지역에 따라 인구밀도와 민족구성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거주지역의 평균적인 인구밀도는 km²당 평균 20명에서부터 3만 명에 육박하는 큰 지역 간 편차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의 평균적인 비중은 0.9%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의 지역

에서는 이 값이 9.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거주지역의 민족구성도 지역 간 많은 편차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직업관련 특성으로는 취업상태 여성들 중 17.4%는 국내에 거주하는 같은 민족 출신 친구나 지인을 통해 조사당시 종사하고 있던 직업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대상 혼인이주여성들은 평균적으로 월 105.4만원의 소득을 나타냈으며 이들 중 14.4%는 고숙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다.

3. 분석방법

이 연구는 다층모형분석(multi-level analysis) 방법을 활용한다. 분석 내 관측값들의 측정수준이 구분되는 경우 다층모형 분석은 일반적인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d, OLS) 방식에 비하여 이론적으로 더 적합하고 정교한 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관측치가 특정한 상위 범주에 군집되어 있는 경우, 다층모형은 OLS 방법에 비해 회귀분석의 기본가정들이 위배되는 것과 상위수준 변수의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상위수준 변수의 회귀계수의 유의수준이 실제보다 과대추정 되는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audenbush & Bryk, 2002).

이 연구의 다층모형분석은 세 가지 순차적인 분석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먼저 아무런 설명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완전무조건모형(fully 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종속 변수에 대해 2차 수준(지역수준)간 유의미한 편차가 있는지 여부와 2차수준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집단 내 상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값을 확인하게 된다. 이후 1차 수준(개인수준)의 설명변수들이 투입된 무조건모형(unconditional model)을 통해 1차수준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지역수준의 편차의 유의미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한다. 이 단계까지의 결과는 이 연구에서 <기초모형>의 결과로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차 및 2차수준의 설명변수들이 모두 투입된 조건부모형(conditional model)이 진행된다. 이 단계의 결과는 <연구모형>으로 분석결과가 결과표의 형태로 제시될 것이다.³⁾

3) 다층모형 분석은 일반 로지스틱분석보다 이론적, 방법론적으로 더 정교한 방법으로 인식되지만, 실제 분석상황에서는 두 모형의 결과가 크게 상이하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김두섭, 강남준, 2000, pp.424-425). 연구자는 이 연구의 분석들을 일반 OLS 방식으로도 진행해본 결과 다층모형 결과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거주지역의 변수들의 경우 오히려

IV. 분석결과

1.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 구직경로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가. 기초모형

〈기초모형〉의 분석결과 완전무조건모형과 무조건모형에서 2차수준의 분산은 각각 0.048(표준오차 0.016), 0.067(표준오차 0.019)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군·구 지역 간 같은 민족 구직경로에 해당될 승산비(odds-ratio)의 유의미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의 경우 Snijders와 Bosker(201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1차 수준 분산을 $\pi^2/3$ 으로 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ICC 값은(1차수준 분산)/(2차수준 분산 + $\pi^2/3$)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각 분석의 ICC 값은 각각 1.43%, 2.01%를 나타냈다. 이는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행위의 약 1-2% 정도가 시·군·구 수준 지역 특성에 의해 설명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연구모형

먼저 〈표 2〉에 제시된 결과 중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 관련 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연구모형 1〉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선족(중국) 아내에 비해 한족(중국) 아내, 베트남인 아내, 필리핀인 아내 모두 같은 민족 구직경로를 활용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베트남 아내와 필리핀 아내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베트남 아내와 필리핀 아내의 경우 해당 승산비가 각각 3.27과 3.93으로 나타났다. 이는 베트남 아내와 필리핀 아내는 다른 조건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조선족(중국) 아내에 비해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할 개연성이 각각 3.27배와 3.93배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 그 효과가 OLS 분석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층모형 분석의 결과는 OLS 방식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검증방식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비록 그 정도가 크지는 않다고 판단되지만 자료의 내생성으로 인해 회귀분석의 기초가정이 위배되는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같은 민족 구직경로를 활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수준과 한국어 능력과 같은 인적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같은 민족 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취업을 도모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문화적응수준이 높아질수록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거주기간, 한국국적 취득여부는 모두 같은 민족 구직경로와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족특성의 경우 남편과의 동거여부는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친정 가족 수 역시 같은 민족 이외의 경로를 통한 구직확률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과 함께 동거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수가 증가할수록 이들을 매개로 하는 사회활동 및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므로 발생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거주지역 특성을 살펴보면 거주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거주지역 민족구성 특성의 경우 같은 민족인구비중이 5%를 상회하는 일부 지역에서만 유의미한 주변효과가 발생하였다.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1% 미만인 지역에 비하여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이하인 지역들에서는 구직경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이상인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할 승산비가 약 49%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였다($p=0.027$). 이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인구비중이 높아질수록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 1>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표 2.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 구직경로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결과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같은 민족 구직경로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Coef. (S. E.)	Odds-Ratio	Coef. (S. E.)	Odds-Ratio
상수	-1.52** (0.27)		-1.86** (0.27)	
Level 1(개인수준)				
한족(중국) 아내	0.36** (0.08)	1.43	0.32** (0.08)	1.37
베트남인 아내	1.18** (0.09)	3.27	1.07** (0.09)	2.91
필리핀인 아내	1.37** (0.09)	3.93	1.19** (0.09)	3.30
연령	0.01† (0.00)	1.01	0.01** (0.00)	1.01
교육년수(년)	-0.02** (0.01)	0.98	-0.03** (0.01)	0.97
주관적 건강상태	-0.03 (0.02)	0.97	-0.00 (0.03)	1.00
국내 거주기간(년)	-0.02* (0.01)	0.98	-0.01† (0.01)	0.99
한국어 능력	-0.10** (0.03)	0.90	-0.10** (0.03)	0.90
한국 국적취득여부	-0.20** (0.06)	0.82	-0.18** (0.06)	0.83
본국 근로경험여부	0.02 (0.06)	1.04	0.02 (0.06)	1.02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0.00 (0.07)	1.00	-0.01 (0.07)	0.98
남편과 동거여부	-0.40** (0.06)	0.67	-0.29** (0.06)	0.75
남편 취업여부	-0.11 (0.07)	0.90	-0.10 (0.07)	0.90
미취학 자녀수(명)	-0.04 (0.04)	0.96	-0.05 (0.04)	0.95
국내거주 친정가족 수(명)	-0.09** (0.03)	0.91	-0.11** (0.03)	0.90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08** (0.02)	0.93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22** (0.02)	1.25
Level 2(지역수준)				
서울/광역시 거주여부	-0.03 (0.09)	0.97	-0.04 (0.09)	0.96
거주지 인구밀도(명/km ²)	0.09** (0.02)	1.09	0.09** (0.02)	1.09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1~3%	-0.01 (0.09)	1.01	-0.05 (0.09)	0.95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3~5%	-0.04 (0.15)	1.04	-0.01 (0.15)	0.99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5% 이상	0.40* (0.18)	1.49	0.33† (0.18)	1.39
Level 2 분산	0.05** (0.02)		0.05** (0.02)	
X ²	799.43**		933.20**	
사례수	15,857			

주: 1) † : $p < 0.10$, *: $p < 0.05$, **: $p < 0.01$.

2) 출신민족변수의 준거변수는 조선족(중국) 아내이며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준거변수는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0~1%이다.

이 연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주지역의 주변효과가 주로 인적네트워크 및 사회자원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 관련 변수가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관계를 일정부분 매개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사회활동 변수들을 통제할 경우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의 한계효과

(marginal effect)가 아닌 해당 변수의 조건부효과(conditional effect)를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여, 사회활동 관련 변수를 투입한 별도의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모형 2>의 결과는 한국인 및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의 규모를 나타내는 두 변수가 투입된 결과를 나타낸다.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 변수를 투입하자 인구비중 5% 이상에서의 같은 민족 구직 경로에 대한 승산비와 유의수준이 모두 감소하였다(승산비 1.49→1.39, 유의수준 0.027→0.066). 이는 그 정도가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활동 특성이 거주지역의 인구 비중이 5%이상인 지역이 같은 민족을 통해 구직을 도모하는 확률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일정부분을 매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인구가 증가할수록 한국인 보다는 동족간의 사회적 교류가 증가하며 이러한 관계양상이 구직활동에도 이어지는 인과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2.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다층모형 회귀분석

가. 기초모형

혼인이주여성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완전무조건모형과 무조건모형의 2차 수준의 분산값은 각각 0.015(표준오차 0.002)와 0.006(표준오차 0.001)을 나타냈고 두 값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하였다. 다층모형 회귀분석의 경우 ICC값은(2차수준 분산)/(1차수준 분산 + 2차수준 분산)으로 계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분석의 ICC 값은 약 4.14%와 1.87%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월평균 소득에 대한 지역 간 유의미한 편차가 존재하며, 개인수준의 변수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역 간 편차에 의해 소득수준의 차이의 4.14% 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1.87%가 설명됨을 의미한다.

나. 연구모형

〈표 3〉에 제시된 〈연구모형 1〉결과에 의하면 베트남 아내들은 조선족(중국) 아내보다 평균적으로 다른 조건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더 낮은 월 평균 소득을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민족 집단들은 다른 조건들을 통제할 경우 조선족(중국) 아내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특성 중 연령은 소득과 정(+)적 영향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수준과 한국어 능력수준 그리고 건강수준이 높은 아내일수록 더 높은 소득을 얻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국적 취득여부는 다른 조건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월 평균 소득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다소간 일반적인 인식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현재로써는 그 명확한 원인을 추적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결과를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혼인이주여성들이 주로 취득하는 비자(F-2, F-5 비자)는 국내에서 취업을 도모하는데 별다른 제약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높은 소득수준의 여성일수록 자신의 본 국적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혼인이주여성의 본국에서의 근로경험은 국내에서의 임금수준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본국에서 고숙련직종에 종사한 경험은 국내에서의 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과 비 동거 상태의 혼인이주여성이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동거상태인 혼인이주여성보다 더 높은 평균소득을 나타냈다. 이는 남편과 이혼 및 별거하여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부과된 혼인이주여성이 더욱 적극적으로 경제적인 수입을 모색하게 되는 결과로 해석된다. 또, 미취학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의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활동 특성의 경우 혼인이주여성의 국내에서의 사회활동은 그 대상과 관계없이 혼인이주여성이 더 높은 소득을 제공하는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및 같은 민족 각각의 사회활동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소득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특성의 경우 인구밀도는 월 평균 소득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으나, 서울시 및 광역시 거주여부는 그 반대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상당부분 해당 지역의 도시화 정도에 대한 대응치로 사용된 거주지의 인구밀도가 통제된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1~3%인 지역 거주여부도 월 평균 소득과 0.10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표 3.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월 평균 소득에 대한 다층모형 회귀분석 결과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월평균 소득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Coef. (S. E.)	Coef. (S. E.)
상수	3.75** (0.06)	3.75** (0.06)
Level 1(개인수준)		
한족(중국) 아내	0.02 (0.02)	0.03 (0.02)
베트남인 아내	-0.15** (0.02)	-0.15** (0.02)
필리핀인 아내	-0.03 (0.02)	-0.02 (0.02)
연령	0.00** (0.00)	0.00** (0.00)
교육년수(년)	0.02** (0.00)	0.02** (0.00)
주관적 건강상태	0.05** (0.01)	0.05** (0.01)
국내 거주기간(년)	-0.00 (0.00)	-0.00 (0.00)
한국어 능력	0.02** (0.01)	0.02** (0.01)
한국 국적취득	-0.04** (0.01)	-0.04** (0.01)
본국 근로경험여부	-0.00 (0.01)	-0.00 (0.01)
본국 고숙련직종 종사여부	0.05** (0.01)	0.05** (0.01)
남편과 동거여부	-0.06** (0.02)	-0.06** (0.01)
남편 취업여부	0.04** (0.02)	0.04** (0.02)
미취학 자녀수(명)	-0.13** (0.01)	-0.13** (0.01)
국내거주 친정가족 수(명)	0.01 (0.01)	0.01 (0.01)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02** (0.00)	0.02** (0.00)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02** (0.00)	0.02** (0.00)
같은 민족 구직경로	-0.02† (0.01)	-0.03* (0.01)
같은 민족 구직경로 * 인구비중 5% 이상		0.19* (0.07)
Level 2(지역수준)		
서울/광역시 거주여부	-0.05** (0.02)	-0.05** (0.02)
거주지 인구밀도(명/km ²)	0.03** (0.00)	0.03** (0.00)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1~3%	0.03† (0.02)	0.03† (0.02)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3~5%	0.02 (0.03)	0.02 (0.03)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5% 이상	0.05 (0.04)	0.01 (0.04)
Level 1 분산(개인수준)	0.33** (0.00)	0.33** (0.00)
Level 2 분산(지역수준)	0.00** (0.00)	0.00** (0.00)
X ²	1,292.40**	1,299.05**
사례수	15,857	

주: 1) † : $p < 0.10$, * : $p < 0.05$, ** $p < 0.01$.

2) 출신민족변수의 준거변수는 조선족(중국) 아내이며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준거변수는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0~1%이다.

이 연구가 관심을 갖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경로는 월 평균 소득과 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유의수준 0.10에서 유의하였다($p=0.098$).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같은 민족을 통해 매개된 직업은 다른 경로보다 더 낮은 소득수준을 나타낸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의 〈연구가설 2〉와 부합하는 결과이다. 〈연구모형 2〉에서는 이 연구의 〈연구가설 3〉를 검증하고자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 5% 이상 변수와 같은 민족 구직경로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투입결과, 상호작용 변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월평균 소득에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b=0.19, p=0.012$). 또, 상호작용항의 투입과 함께 전체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경로 유의수준이 0.05 수준으로 낮아졌다(유의수준 0.098→0.040).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전반적으로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은 다른 경로를 통한 직업보다 낮은 임금수준의 직업을 매개한다. 그러나 같은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를 상회하며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이 오히려 소득측면에서 더 선호적인 조건의 직업을 매개하는 효과가 나타난다.⁴⁾

3.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고숙련직종 종사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

가. 기초모형

고숙련 직종 종사여부에 대한 다층모형 로지스틱분석의 완전무조건모형과 무조건 모형의 2차 수준 분산값은 0.211(표준오차 0.034)과 0.131(표준오차 0.032)을 나타냈

4)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의 구간을 구분함에 있어 구분기준이 분석결과에 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거주지역의 인구비중만으로 민족커뮤니티 여부를 구분하거나 주변효과를 탐구할 때 일정한 임계치를 구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따라서 연구자는 해당 사회 및 연구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구분설정을 판단해야한다. 이 연구는 구간구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달리하여 해당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같은 민족인구 비중이 높고 자체적인 이주민 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인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구직경로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같은 민족 인구비중을 구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취급하여 같은 분석을 시행한 경우에도 연속변수 형태인 같은 민족 인구비중과 같은 민족 구직경로간의 상호작용항은 혼인이주여성의 월 평균 소득에 유의미한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아울러,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 이상인 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은 7~10%였으며 모두 선행연구들을 통해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으며, 모두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또, Snijders와 Bosker(2011)의 방법대로 구한 ICC값은 6.04%와 3.88%를 나타냈다.

나. 연구모형

먼저 <표 4>의 <연구모형 1>의 결과를 통해 출신민족별로 직업의 숙련도에 뚜렷한 편차를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아내의 경우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조선족(중국) 아내에 비해 고숙련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다. 반면, 한족(중국) 및 필리핀 아내들은 고숙련 노동에 종사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필리핀 아내들의 경우 로그-승산비가 2.41에 달했다. 이는 필리핀 아내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교육수준과 영어활용 능력에서의 우위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특성을 살펴볼 경우 연령은 혼인이주여성의 직업의 숙련도 정도와 강한 부(-)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혼인이주여성의 연령이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들이 높은 숙련도 직업에 종사할 개연성이 약 7%가 하락하였다. 반면, 교육수준은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혼인이주여성이 국내에서 고숙련 직업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혼인이주여성의 교육수준이 한 단위 높아질수록 고숙련 노동에 종사할 개연성이 약 52% 증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 한국어 능력이 높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여성이 고숙련 노동에 해당하는 직업을 얻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의 근무 경험의 경우 앞선 월 소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국에서의 단순 근무경험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본국에서 고숙련 직종에 종사한 경험은 국내에서도 고숙련 근무에 대한 확률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국에서 고숙련 근무경험이 있는 여성은 다른 조건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고숙련 직종에 종사할 개연성이 2.7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고속권직종 종사여부에 대한 다중모형 로지스틱 분석

	취업상태 혼인이주여성의 고속권직종 종사여부			
	〈연구모형 1〉		〈연구모형 2〉	
	Coef. (S. E.)	Odds-Ratio	Coef. (S. E.)	Odds-Ratio
상수	-7.38** (0.40)		-7.38** (0.38)	
Level 1(개인수준)				
한족(중국) 아내	0.34** (0.10)	1.40	0.34** (0.10)	1.40
베트남인 아내	-0.72** (0.14)	0.49	-0.72** (0.14)	0.49
필리핀인 아내	0.88** (0.10)	2.41	0.88** (0.10)	2.41
연령	-0.07** (0.01)	0.93	-0.07** (0.01)	0.93
교육년수(년)	0.42** (0.01)	1.52	0.42** (0.01)	1.52
주관적 건강상태	0.01 (0.03)	1.01	0.01 (0.03)	1.01
국내 거주기간(년)	0.03** (0.01)	1.03	0.03** (0.01)	1.03
한국어 능력	0.27** (0.04)	1.32	0.28** (0.04)	1.32
한국 국적취득	0.30** (0.08)	1.35	0.30** (0.08)	1.35
본국 취업경험여부	0.05 (0.09)	1.05	0.05 (0.09)	1.05
본국 고속권직종 종사여부	1.00** (0.07)	2.71	1.00** (0.07)	2.71
남편과 동거여부	0.18* (0.10)	1.19	0.18 (0.10)	1.19
남편 취업여부	0.08 (0.05)	1.09	0.09** (0.05)	1.09
미취학 자녀수(명)	0.25** (0.05)	1.28	0.25** (0.05)	1.29
국내거주 친정가족 수(명)	-0.05 (0.04)	0.95	-0.05 (0.04)	0.95
한국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15** (0.03)	1.16	0.15** (0.03)	1.16
같은 민족인과의 사회활동 규모	0.13** (0.03)	1.14	0.13** (0.03)	1.14
같은 민족 구직경로	-0.15* (0.08)	0.86	-0.15* (0.08)	0.86
같은 민족 구직경로 * 인구비중 5% 이상			0.57 (0.65)	1.77
Level 2(지역수준)				
서울/광역시 거주여부	-0.12 (0.12)	0.89	-0.12 (0.12)	0.89
거주지 인구밀도(명/km ²)	-0.00 (0.03)	1.00	-0.00 (0.03)	1.00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1~3%	-0.40** (0.12)	0.68	-0.39** (0.12)	0.68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3~5%	-0.25 (0.23)	0.78	-0.25 (0.23)	0.78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5% 이상	-0.45 (0.31)	0.64	-0.54 (0.34)	0.58
Level 2 분산(지역수준)	0.10** (0.03)		0.10** (0.03)	
X ²	2,654.07**		2,654.34**	
사례수		15,758		

주: 1) †: $p < 0.10$, *: $p < 0.05$, ** $p < 0.01$.

2) 출신민족변수의 준거변수는 조선족(중국) 아내이며 거주지역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준거변수는 거주지 같은 민족 인구비중 0~1%이다.

혼인이주여성의 가족특성 중 직업의 숙련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미취학 자녀수가 유일하였다. 다만, 미취학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고속권 노동에 종사할 경향이 높아지는 이 연구의 결과는 그간 어린자녀의 여부가 혼인이주여성의 주요한 노동활동 제약요인이라는 기존연구결과와 부합하지 않는다(박재규, 2013).

이러한 결과는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가능성과 동시에 이 연구가 경제활동에 참가중인 여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미취학자녀로 인해 노동활동의 제약을 경험하는 여성들이 취업여부에 의해 이미 연구대상으로부터 제외된 사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활동의 경우 소득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인 및 같은 민족과의 활동 모두 혼인이주여성이 고숙련 직업을 얻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특성의 경우 대도시 거주여부, 거주지역의 인구밀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1~3%인 지역 거주여부는 고숙련직종 종사여부와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

같은 민족을 통해 직업을 구한 혼인이주여성들은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평균적으로 고숙련 직종에 근무할 개연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결과는 유의수준 0.10에서 유의하였다($p=0.074$). 이러한 결과는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노력은 고숙련 직업을 얻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경로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연구가설 2>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추가적으로, <연구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모형 2>에서는 거주지역 민족특성과 구직경로간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되었다. 투입결과,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5% 이상인 지역에서 같은 민족을 통해 직업을 얻은 경우 고숙련 직종에 종사할 개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400$). 다만, 상호작용항의 투입으로 인해 같은 민족구직경로의 유의수준은 0.062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V. 맺음말

현대인들에게 직업의 의미는 단순한 생활수단의 확보보다 더 넓은 외연을 가지고 있다. 직업은 현대사회에서 개인들의 다양한 삶의 기회들을 결정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국내 혼인이주여성에게도 직업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국내 혼인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서 주변화 되지 않고, 주체적인 삶의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질들을 발현할 수 있는 적절한 직업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에서 확인된바 정착 및 구직과정에서 이주민들은 자신의 동족 이주민들을

활용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이주사회에서의 불확실성과 차별을 우회하기 위한 하나의 이주민들의 정착전략인 것이다. 아울러,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은 이러한 이주민간의 네트워크의 질적 및 양적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생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에 따라 동족 이주민 사이의 관계망의 규모와 효과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종합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을 구하는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증가가 혼인이주여성이 구직활동 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하는 경향을 강화시키는가?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한 국내의 혼인이주여성의 구직성과는 어떠한가? 그리고 국내의 노동시장에서 같은 민족을 구직과정에서 활용하는 효과가 해당 지역의 민족구성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을까?

해당 연구 질문을 탐구함에 있어 이 연구는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의 증가가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할 확률을 증대시키고, 같은 민족을 통해 매개된 직업은 낮은 임금수준 및 숙련수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 인구비중이 높은 일부 지역에서는 같은 민족을 활용하는 구직노력의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거주지역의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증가할수록 혼인이주여성이 구직과정에서 같은 민족을 활용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주변효과는 거주지역의 인구비중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며 민족커뮤니티의 형성이 동반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같은 민족을 통해 매개된 직업의 경우 기타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다른 경로를 통해 매개된 직업에 비해 낮은 임금수준과 숙련도를 특성으로 하는 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들이 현재 국내 노동시장에서 점유하는 지위를 고려할 때, 이들이 좋은 직업을 매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같은 민족의 인구비중이 높고 민족커뮤니티가 형성된 일부 지역에서는 직업의 임금수준 측면에서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직업의 숙련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민족인구의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같은 민족을 통한 구직활동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해당 지역 내에서 일부 혼인이주여성들은 같은 민족인의 소개로 동족인을 상대로 하는 영세자영업을 운영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 혼인이주여성이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같은 민족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내에 피고용 되는 것이 이들의 인적자본에 비해 더 선호적인 근무조건을 제공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민족커뮤니티 내에서 민족인들 간의 상호네트워크가 증진되는 과정에서 직업과 관련된 정보 및 기회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하여 혼인이주여성이 더 선호적인 직업을 취득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학술적, 사회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먼저 혼인이주여성의 인적자본수준에 따라 이들의 국내에서의 취업전략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혼인이주여성의 교육, 근무경험, 보유기술과 같은 인적자본 특성과 직업에 대한 기대수준을 고려한 차별적인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장서영 등, 2009, pp.285-292). 예를 들어, 김영혜 등(2011, pp.63-197)의 연구보고서가 제시하는 것처럼 혼인이주여성이 갖는 독특한 인적, 문화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결혼이민자의 적합 직종들 개발하는 것도 혼인이주여성의 특수성이 반영된 하나의 취업지원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같은 민족 간 인적관계를 통한 취업전략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혼인이주여성들에게 소득과 숙련도 측면에서 모두 다른 경로에 비해 비선호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식적 차원의 취업지원 정책과 지원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혼인이주여성의 지역적 기반과 및 인적 상호작용을 아우를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한다. 동시에 장서영 등(2009, pp.29-31)의 연구보고서는 절반에 가까운 국내의 혼인이주여성이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 직장알선 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취업지원에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인식제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된다.

추가적으로, 국내의 이주민들의 자체적인 커뮤니티의 저변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연구의 결과는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지역에서 형성된 동족 이주민 간의 인적관계망이 이들의 정착을 돕는 유용한 자원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시에 이 지역들이 이주민들과 동시에 인근에 거주하는 정주민들에게 양방향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학술 및 정책적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일환에서 혼인이주여성 및 이주민들이 밀집된 형태로 거주하는 지역이 이들의 원활한 정착과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서구 이주사회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해당

지역과 거주민들이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게토(ghetto)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들이 장기적인 목표를 두고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내의 일부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거나 이주민들의 집중 유입으로 통해 형성된 지역적 특색을 문화체험 마을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세훈 등, 2009, p.183)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먼저, 더 구체적인 직업정보가 가용하였다면 혼인이주여성의 구직성과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더 면밀한 탐구가 가능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지역의 경우 혼인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생활환경이 행정구역단위를 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혼인이주여성의 거주 지역 뿐만 아니라 근무지역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면 더 다양한 연구시도가 가능했을 것이다. 또, 이 연구는 시·군·구 단위의 지역들의 여러 집합적 특성들을 포착 할 수 있는 자료들의 한계로 인해 거주지역의 다양한 사회·경제·문화적 특성들을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면밀한 거주지역 민족구성의 효과를 탐색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

추가적으로 거주지역의 주변효과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는 진정한 인과 효과(true casual effect)의 추론문제도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주변효과를 탐색하는 문헌들이 공통적으로 봉착하는 어려움은 발생하는 각 주변효과가 거주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유한 인과적 효과인지 아니면 해당 지역에 특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선별성(selectivity)의 문제인지를 면밀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가용한 종단적인 자료가 제공된다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원은 현재 한양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주요 관심분야는 인구학 및 국내 다문화가족이다.

(E-mail: leejw303@hanmail.net)

참고문헌

- 김경희, 허영숙. (2014).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를 중심으로 본 한국의 에스닉(ethnic) 노동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53(20), pp.75-110.
- 김두섭. (2014). 거주지역의 민족구성이 혼인이주여성의 사회활동과 적응유형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7(1), pp.1-29.
- 김두섭, 강남준. (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
- 김두섭, 송유진. (2013). 거주지역 외국인 아내의 비중과 가구구조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6(1), pp.51-74.
- 김승권, 조애저, 민현주. (2010). *여성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서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 김영혜, 오경희, 선우은정, 남효정. (2011). *결혼이민여성 적합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부.
- 김한성, 이유신. (2013).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지역사회특성과 차별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7(2), pp.177-209.
- 김현선. (2010). 한국체류 조선족의 밀집거주 지역과 정주의식. *사회와역사*, 87, pp.231-264.
- 박미숙, 김영순, 홍유나. (2014).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여성학연구*, 24(2), pp.269-302.
- 박미은, 신희정, 이미림. (2012). 결혼이주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3(4), pp.213-244.
- 박세훈, 이영아. (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다문화사회연구*, 3(2), pp.71-101.
- 박세훈, 이영아, 김은란, 정소양.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1):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안양: 국토연구원.
- 박재규. (2013). 농촌과 도시 결혼이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 및 지원방안 연구. *GRI 연구논총*, 15(1), pp.5-33.
- 박형기, 김석호, 이정환. (2014). 국내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연결망과 이직경험: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E-9)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7(1), pp.31-57.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원자료
- 이석준, 김경민. (2014).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15(4), pp.1-16.
- 이태정, 이용수, 신현구, 김명수. (2013).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상태에 대한 분석 연구. *한국인구학*, 36(3), pp.21-44.
- 양인숙, 김선훈. (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영경제연구*, 34(1), pp.237-266.
- 장서영, 김이선, 이로미, 장인자, 유지영. (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노동부.
- 장서영, 이로미, 장인자. (2010). 결혼이민자의 구직자 유형 분석. *여성연구*, 78(1), pp.77-177.
- 전기택, 정해숙, 정이선, 김영란, 주재선, 김혜영 등. (2013).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전은희. (2014). 고학력 결혼이주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취업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0(3), pp.1-35.
- 통계청. (2012). 2012 경제활동인구연보. 대전: 통계청.
- 통계청. (2014). 2013년 혼인·이혼통계. 인구동향과 보도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행정자치부. (2009).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치행정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mogaha.go.kr>.
- 행정자치부. (2014).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사회통합지원과.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mogaha.go.kr>.
- SSK 다문화사업단. (2012). 다문화 시군구 통계 Data Sheet, 2010. 원자료 서울: 한양대 SSK 다문화사업단.
- Aguilera, M. B., & Massey, D. (2003). Social capital and the wages of Mexican migrants: New hypotheses and tests. *Social Forces*, 82(2), pp.671-701.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pp.241-254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hiswick, B., Lee, Y. L., & Miller, P. W. (2005). A longitudinal analysis of immigrant occupational mobility: A test of the immigrant assimilation hypothesi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9(2), pp.332-353.
- Elliott, J. R., & Sims, M. (2001). Ghettos and barrios: The impact of neighborhood poverty and race on job matching among blacks and Latinos. *Social Problem*, 48(3), pp.341-361.
- Esser, H. (2004). Does the new immigration require a new theory of intergenerational inte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8, pp.1126-1159.
- Galster, G. C. (2012). The mechanism(s) of neighbourhood effect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M. van Ham et al.(eds.), *Neighbourhood Effects Research: New Perspectives*, pp.23-56, Dordrecht: Springer.
- Granovetter, M. S. (1973).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6), pp.1360-1380.
- Granovetter, M. S. (1985). Economic action and social structure: The problem of embedded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3), pp.481-510.
- Kim, H., Lee, S. Y., & Choi, I. H. (2014). Employment and poverty status of female marriage immigrants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3(2), pp.129-154.
- Klinthäll, M., & Urban, S. (2014). The strength of ethnic ties: Routes into the labour market in spaces of segregation. *Urban Studies*, 12(3), pp.210-232.
- Levanon, A. (2011). Ethnic social capital: Individual and group level sources and their economic consequences. *Social Science Research*, 40(1), pp.77-86.
- Light, I. H., & Gold, S. (2000). *Ethnic Economies*. Academic Press, San Diego.
- Lin, N., & Dumin, M. (1986). Access to occupations through social ties. *Social Networks*, 8(4), pp.365-385.
- Logan, J. R., Alba, R. D., & Stults, B. J. (2003). Enclaves and entrepreneurs: Assessing the payoff for immigrants and minoriti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7(2), pp.344-388.
- Nee, V., & Sanders, J. M. (2001). Understanding the diversity of immigrant incorporation: a forms-of-capital model. *Ethnic and Racial Studies*, 24(3), pp.386-411.

- Massey, D., & Espinosa, K. E. (1997). What's driving Mexico-US migration? A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analysi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2(4), pp.939-999.
- Portes, A. (1981). Modes of structural incorporation and present theories of labor immigrations In M. M. Kritz, C. B. Keely, & S. M. Tomasi(Eds.), *Global trends in migration*, pp.279-297. Staten Island, NY: CMS Press.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pp.1-24.
- Portes, A., Shafer, S. (2007). Revisiting the enclave hypothesis: Miami twenty-five years later. *Research in the Sociology of Organizations*, 25, pp.157-190.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London: Sage Publishers.
- Sampson, R. J., Morenoff, J. D., &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 pp.443-478.
- Sanders, J. M., & Nee, V. (1987). Limits of ethnic solidarity in the enclave eco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2(6), pp.745-773.
- Sanders, J. M., & Nee, V. (1996). Immigrant self-employment: The family as social capital and the value of human capital.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2), pp.231-249.
- Sanders, J., Nee, V., & Sernau, S. (1994). Job transitions in an immigrant metropolis: Ethnic boundaries and the mixed econom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6), pp.849-872.
- Sanders, J., Nee, V., & Sernau, S. (2002). Asian immigrants' reliance on social ties in a multiethnic labor market. *Social Forces*, 81(1), pp.281-314.
- Snijders, T. A. B., & Bosker, R. J. (2011). *Multilevel analysis: An introduction to basic and advanced multilevel modeling*. London: Sage Publishers.
- Stark, C., Hopkins, P., Gibbs, D., Belbin, A., & Hay, A. (2007). Population density and suicide in Scotland. *Rural and Remote Health*, 7(3), p.672 (online).

- Vervoort, M., Flap, H., & Dagevos, J. (2010). The ethnic composition of the neighbourhood and ethnic minorities' social contacts: Three unresolved issu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5(5), pp.1-20.
- Xie, Y., & Gough, M. (2011). Ethnic enclaves and the earnings of immigrants. *Demography*, 48(4), pp.1293-1315.
- Zhou, M., & Logan, J. R. (1989). Returns on human capital in ethnic enclaves: New York city's Chinatow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5), pp.809-820.

Neighborhood Ethnic Composition and Job Search Path as Determinants of Earning and High Skill Job Employment among Employed Marriage Immigrant Wives in South Korea

Lee, Jiwon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determinants of employed immigrant wives' earning and high skill job employment in South Korea focusing on the effect of residential co-ethnic composition and job search through co-ethnics. Using data from the 2009 *National Multi-cultural Family Survey*, employed marriage immigrant wives from China (Han, Korean-Chinese), Vietnam and Philippine were selected as study samples and compositions of each ethnic group in 251 sig/gun/gu districts nationwide were derived. Having implemented multi-level logistic regression on co-ethnic job search and high skill job employment and multi-level regression on average monthly wage, this study finds that residing in a co-ethnic concentrated area was associated with higher probability of searching for job through co-ethnics. Moreover, jobs attained through co-ethnics were associated with lower earning and skill level,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However, in co-ethnic concentrated areas, job searching through co-ethnics had positive impact on the earning level of job. These findings imply that with substantial spatial accumulation of immigrants, social networks formed among these immigrant groups can act as an important resource for adaptation.

Keywords: Marriage Immigrant Wives, Marriage Immigrant Wives' Job, Ethnic Community, Ethnic Social Capital, Job Search